이 달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19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신문 1+2월

Vol. 217

기사 내용 미리보기

02 춘천교계소식

04 교계회장단좌담회



2017년 기관별 계획 및 춘천교계의 방향성을 모색 하다.

05 사설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삶돔

06 건강이야기
당신의 문제는 과연 공황장애입니까?

07 영화이야기
다큐멘터리 순종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춘천교계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facebook.com/holycc1972

춘천 각 교회 행사나 공유하고 싶은 소식을 전해주실 "춘천 내 교회별 명예기자단"을 모집합니다

☎ 033.256.126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발행인 이사장 박인관 부이사장 이수형
춘천기독교연합회장 박상칠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20 302호
T 033-256-1260 F 033-257-1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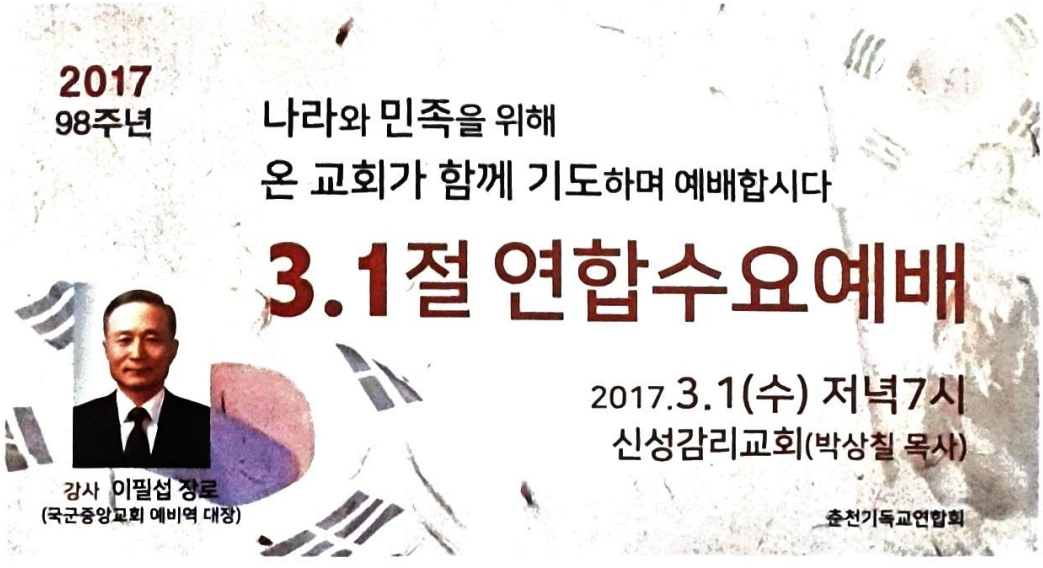


구원 | 김복동 | oil on canvas & wood

성시매거진에서 성시신문으로

본 회보부터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 발간되는 '춘천성시' 매거진이 '춘천성시신문' 타블로이드 판(B4)으로 다시 옷을 갈아입는다. 성시화운동의 취지와 확산을 위해 발간된 춘천성시신문(春川聖市新聞)이 창간호(1998년 9월 15)부터 68호(2004년 7월)까지 기존 신문형태로 발간되었고, 타블로이드판은 69호(2004년 8월)부터 185호(2014년 4월)까지 발간되었으며, 매거진 형태로는 186호(2014년 5월)부터는 216호(2016년 12월)까지 발간되었다. 금번 춘천성시신문으로 변경되는 이유는 성도들이 쉽게 잡을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무게와 내용이 가벼워지는 만큼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

글 편집부



춘천성시신문을 만드는 사람들 사무총장 조영춘 사무차장 최상도 사무국장 이은정 편집국장 이관형 _디자인 및 인쇄 로딘어스 070.4300.8731

춘천교계 소식

제1회 강원기독공직자 선교대회 개최

제1회 강원기독공직자 선교대회가 2017년 2월 25일(토)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춘천동부교회(김한호 목사) 소예배실에서 강원도청기독선교회(조인묵 회장)의 주관으로 개최된다. 본 대회는 강원도청기독선교회와 강원도 18개 시군 임원들과 신우회 회원들의 연합기도모임이다. 강원도청선교회 부회장 김양수 안수집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감당해야 할 공직자의 사명회복과 신우회원들의 연합 그리고 2018 동계올림픽성공기원을 위해 본 대회를 개최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김한호 목사(동부교회)의 말씀선포와 홍현선 회장(전 한국기독공직자선교연합회)의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2016년 성탄트리점등식예배



2016년 성탄트리점등식예배가 12월 4일(주일) 오후4시에 공지천 의암공원에서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박상칠목사) 주관과 춘천시 후원으로 있었다. 이날에는 춘천내 목회자 장로 권사 성도 그리고 최동용 춘천시장이 참여하였다. 1부 예배는 손학균 목사(춘천목회자연합회장, 석사감리교회)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대표기도는 김정호 장로(춘천장로연합회 수석부회장, 제일장로교회)가 하였고, 순복음춘천교회 갈릴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다. 이후 조영호 목사(춘천그리스도의 교회)의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눅2:1-7)"이란 말씀선포가 있었다. 또한 최동용 춘천시장은 "성탄의 기쁨이 춘천시 곳곳에 임하기를 원한다"는 축사를 했다.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의 특송 후 차덕수목사(직전회장, 강원침례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이어 점등식이 진행되었다. 성탄트리는 중앙로 로터리와 공지천 의암공원에 설치되었다.

2016 사랑의 온차 전달 예배



사랑의 온차 전달 예배가 2016년 12월 16일(금) 오후4시 신성교회에서 강원도군선교연합회 주관으로 군교회 목회자와 군종,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1부 예배에는 박상칠 목사(강원도군선교연합회 회장, 신성감리교회)의 사회로 손봉기 목사(2군단교회 담임)의 대표기도, 이수형 목사(강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순복음춘천교회)의 말씀선포와 축도가 있었다. 이어 사랑의 온차 전달식을 가졌다. 사랑의 온차는 매년 성탄절을 맞아 강원도에 있는 군교회에 전달하고 있다. 황금어장인 군선교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이 요청된다고 박용배목사(강원도군선교연합회 총무)는 전했다.

춘천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쌀 전달



2016년 12월 30일(금) 오후2시에는 박상칠 회장(춘천기독교연합회), 박인관 이사장(춘천성시화운동본부)을 비롯한 춘천교계 임원들이 시청을 방문하여 춘천내 교회를 통해 모금된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쌀을 최동용 춘천시장에게 전달하였다.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의 성탄축제 열려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의 2016년 성탄축제가 2016년 12월 22일(목) 오후2시에 소망선교회 주최(윤선애 전도사)로 학교 강당에서 있었다. 올해에는 서울 오륜교회 교정팀이 주관(정해영 팀장)했다. 2016년 성탄축제는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 소속의 최연진외 6명의 어린이가 난타로 문을 열었다. 이어 악기연주 및 찬양, 말씀선포와 다음세대를 위한 메시지, 신촌정보통신학교 학생들의 난타등 이채로운 공연이 펼쳐졌고, 애찬으로 마무리 했다. 소년원이 춘천에 있는 만큼 춘천교회들의 적극적인 관심(도고 및 양육, 상담)이 요청된다.

춘천기독교연합회 2017년 신년교례회



2017년 새해를 맞아 춘천기독교연합회(박상칠 목사, 신성감리교회) 신년교례회가 2017년 1월 10일(화) 오후4시 동부교회(김한호 목사)에서 있었다. 1부 예배는 신재원 수석부회장(춘기연, 새춘천교회 담임)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남준섭 장로(춘천장로연합회 회장, 순복음춘천교회)의 대표기도가 있은 후,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박상칠 회장(신성감리교회 담임)의 신년인사가 이어졌다. 특강에는 탈북자인 주경배 집사의 "북한선교전략(한가정 돕기)"이라는 제목으로 있은 후, 이어 최동용 춘천시장의 축사가 있었다. 그리고 차덕수 직전회장(강원침례교회 담임)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고, 최상도 부총무(사암교회 담임)의 광고 후, 차덕수 직전회장(강원침례교회 담임)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에서는 각 기관 소개 및 인사가 오의석 총무(순복음조은교회 담임)의 진행으로 기독교기관, 선교단체, 복지기관의 인사가 있은 후 2017년 신년교례회를 마무리 했다.

춘천성시지도자(기관, 단체장) 신년모임 가져



춘천내 기관장과 단체장의 모임인 춘천성시지도자 신년모임(황병호 장로)이 2017년 1월 10일(화) 오전7시에 조찬 모임을 갖고 2017년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정기이사회 열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정기이사회가 2017년 1월 24일(화) 오전7시에 조찬으로 열렸다. 1부 예배는 조영춘 사무총장의 사회와 김종렬 장로(춘천홀리클럽 회장)의 대표기도, 박인관 이사장(광염교회)의 말씀 선포와 김창환 직전이사장(온누리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드렸다. 2부 이사회는 박인관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먼저 성시화 운동 확산을 목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매체인 '춘천성시' 매거진에 대해 새롭게 논의된 사항을 나누었다. 앞으로는 교계 뉴스와 홍보신문 형태인 타블로이드판으로 발간하고, 매거진은 1년에 한번 특집 형태로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되었다. 또한 홈페이지와 SNS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에도 동의되었다. 그리고 각 교회별 명예기자를 선출해서 교회 소식들이 원활히 실릴 수 있도록 하여 춘천 교회 연합과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되었다. 이어서 2017년 행사계획이 논의되었는데, 먼저 '만인 기도 만인 후원 운동'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10월 첫 주 성시주간이 추석휴무인 관계로 9월 17일 주일저녁(변경가능)부터 갖기로 잠정 논의되었다. 강사선정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되었다. 또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성시화운동 단체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와의 '성시화 협약'을 맺는 계획과 독일 베를린 비전교회 김현배 목사(유럽성시화운동본부 대표)의 초청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탐방을 위해 8월 22일(월)부터 9월 1일(금)까지 성시화운동 관계자들이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5월 중에 있는 '블레싱 춘천' 개최 결정과 회계 홍순신 권사(평화동산교회)의 재정보고가 있은 후 마무리 되었다.

하나원 교육생 종교 및 문화생활체험 행사

하나원 교육생 종교 및 문화생활체험 행사가 1월 21일(토) 오전10시에 신성감리교회(박상칠 목사)에서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석사현 사무총장)



의 주최, 춘천기독교연합회(박상칠 회장)의 주관으로 있었다. 이번 교육생들이 남한에서 가진 첫 도시나들이는 신성감리교회의 심김으로 진행되었다.

춘천기독교연합회 총무 사임 & 위임

춘천기독교연합회 총무를 8년여간 사역했던 오의석 목사(순복음조은교회)가 2017년 1월 31일부로 사임하고 최상도 목사(사암성결교회)가 위임받았다. 오의석 목사는 현재 강원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재임 중이다.

글 / 사진 이은정기자

춘천성시 캠페인

'만인 기도 만인 후원 운동' 펼쳐

만 명의 기도 후원자와 만 명의 1천원 후원자 모집

2017년 새롭게 구성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임원진(박인관 이사장, 이수형 부이사장, 박상칠 본부장, 이병철 부본부장, 조영춘 사무총장, 최상도 사무차장)과 김창환 전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진들은 새해 주요사업 중 하나로 '만인 기도 만인 후원 운동'을 기획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인 기도 만인 후원 운동'은 춘천 교회내 성시화운동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만 명의 기도 후원자와 만 명의 1천원 후원자'를 발굴 · 모집하는 운동이다. 이를 위해 춘천의 모든 교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목회자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이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성시화운동 확산의 촉매제 역할을 감당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글 편집부





교계 회장단 좌담회

2017년 기관별 계획 및 춘천교계의 방향성 모색

2016. 12. 16(금) 오후 2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실

· 사회 : 조영춘목사 · 참석자 : 박상칠목사, 박인관목사, 손학균목사, 김종열장로, 남준섭장로 · 정리:최영조목사



사회 (성시화운동본부사무총장 조영춘 목사)
지난 총회를 통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새해인사와 더불어 새해에 계획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좌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 참여해 주신 모든 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합회장님 기도해주시지요.) 먼저 신년인사 겸 덕담 한 말씀씩 해주시지요.

기독교연합회회장 박상칠 목사 '희망찬 새해에 함께 갑시다' (Let's go together) 춘천에 있는 여러 교단들의 교회들과 기관들이 Let's go together!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혼자가면 멀리 가지 못하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together(함께)의 첫 이니셜로 덕담을 나누려고 합니다. T(time)-함께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나누며 자주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obey)-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킴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G(guide)-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친절한 안내자가 되십시다. E(encourage)-서로 용기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삶을 삽시다. T(trust)-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삶을 삽시다. H(Hand in hand)-손에 손을 잡고 섬기며 나누며 삽시다. E(empty)-서로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올해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지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겸손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R(respect)-서로 존경하며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기독교인으로서 품위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성시화운동본부이사장 박인관 목사 세상은 혼란스럽고 암울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 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희망이십니다. 요즘 국론이 서로 갈라져 대통령을 내리자 올리자 야단이지만 어느 대통령이 세워져도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목회자연합회회장 손학균 목사 현재 우리는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하는 불신이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우울한데, 그러기에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교회뿐만 아니라 각 기관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 사회를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기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연합회회장 남준섭 장로 2017년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세상 속에 그 빛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홀리클럽회장 김종열 장로 춘천은 수십 년 전부터 성시화에 대한 깊은 역사를 간직한 도시입니다. 1972년도 고 김준곤목사님, 1974년도 조용기목사님, 평신도로서는 7-80년대에는 조남진장로님, 고 이학규장로님, 전용태장로님, 양인평장로님 등이 기관장 모임을 하면서 춘천성시화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도에 홀리클럽이 창설되어서 춘천성시화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하였습니다. 홀리클럽은 초대교회의 성령운동을 일으키는 켜서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사회자 조영춘 목사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다보니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에 걸맞게 춘천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2017년도 각 단체들마다 주력할 사업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독교연합회회장 박상칠 목사 제가 서울에 있다가 춘천에 내려와 보니 기독교 각 단체들이 다 따로 따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따로 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결집력도 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모이는 숫자에 따라 그 힘을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대 세상을 향한 사역에 있어서 하나로 연합이 안되면 세상에 오히려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선교대회를 하게 될 것이고, 후반기에는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해 강사를 초빙해서 듣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중 가능하면 부활주일 오후에 춘천의 400여 교회가 모두 모여서 전도하는 행사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홀리클럽회장 김종열 장로 부활절 연합전도대회를 위해 각 단체들이 함께 모여 준비해야 한다는 연합회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춘천의 연합단체장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게 되면 좋겠습니다.

성시화운동본부이사장 박인관 목사 제가 고민하는 문제는 왜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성시화운동에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성시라는 말에 거부감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성시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시화 운동의 필요성을 못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성시화운동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 두 교회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연합이 기본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은 큰 교회는 커서 참석하지 않고, 작은 교회는 작아서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사무총장께서 진임사역을 하실 수 있게 되어서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우선 사무총장님을 중심으로 함께 각 교회를 순방하면서 성시화 운동이 무엇인지를 알려 성시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 오후예배에 초청해 주시면 방문해서 성시화운동에 대해 알리고, 그때 삼천회원(매월 삼천원후원회원)을 확보하는 일도 함께 하여서 성시화운동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목회자연합회회장 손학균 목사 예년에 선임 회장님들이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신임회장으로서 얼마나 만족시킬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춘천에 있는 목회자들을 어떻게 위로하는 사역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 들어 고민되는 것은 춘천에 있는 건강한 교회들의 멤버십을 곤고히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장로연합회회장 남준섭 장로 올해 장로연합회에서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교회가 되어 교회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6. 25 기념구국기도회를 갖고자 하는데, 올해는 주일이라 오후에 연합으로 모여 기도하며 군선교회와 협력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5월 중에는 행복한 춘천도시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진교회를 돕기 위한 방안으로 순방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홀리클럽회장 김종열 장로 올해 홀리클럽의 목표는 '성령으로 하나되어 성시화에 앞장서자' 로 정하였습니다. 매달 기도회를 갖고, 의료봉사와 졸업학생 표창, 그리고 홀리투어로 양화진 선교사묘역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연합회회장 손학균 목사 간혹 춘천에 방문하는 분들 중에 춘천의 교회 성지나 성시역사를 보기 원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디로 안내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게 됩니다. 춘천의 역사를 포함한 교회 혹은 성시역사를 투어할 수 있는 장소를 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연재된 자료를 모아 작은 책자를 만들어 교회에 배부해도 좋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자 조영춘 목사 오늘 각기관 연합회장님들을 뵙고 말씀을 나누면서 춘천에 대한 새로운 꿈과 비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각 연합회마다 다양한 특징들이 있지만 춘천의 복음화를 위해 하나로 엮어져서 더 효과적인 사역이 필처질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각 기관 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 최영조 목사

사설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여야 할 샬롬

글 박인관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광염감리교회)

정치와 경제는 인간사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 틀림없다. 원숭이를 비롯한 동물의 세계에도 정치가 있고 권력에의 암투는 엄연하다. 물론 다람쥐에게도 미련 곰단지라고 말하는 곰에게도 경제가 있음도 분명하다. 그러니 고등동물이라고 다를까? 하니 정치와 경제는 결코 서로 등질 수 없는 단짝 아니겠는가? 근대이후 인간사회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양대 정치, 경제체제를 선택하였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인정하였고 백성들의 선택에 따른 대중정치를 선택한 반면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고 분배에 초점을 두었다. 이 두 이데올로기는 애시당초 서로 대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유럽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문제점들을 보완한 사회주의를 선택하였다. 특히 독일은 사회주의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다

여하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둘 다 분명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의 최대 문제는 빈익빈부익부의 갈등이고 공산주의는 자발적 경제나 정치의 참여가 불가능하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를 보완하겠다는 사회주의는 완전한가? 쟁쟁한 유럽의 나라들이 국가부도 위기를 맞는 상황을 보면 그 역시 완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양극단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 공의와 정의가 추락한 이 땅의 현실을 보고 촛불시위를 하며 혁명을 기치로 내거는 편이나 태극기를 흔들며 지키려는 편이 너무 팽팽하여 요즘 같으면 말 한번 잘못하면 곧바로 마녀사냥감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까? 물론 공산주의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진정한 답인가?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다. 공산주의 보다는 덜하니 부득이 줄서기를 하자면 민주주의가 낫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신정통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실현되는 사회 말이다. 사도행진에 나오는 완벽한 공산주의다. 이 진정한 공산주의가 그립다. 분명한 것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강제로 나누는 마르크스, 레닌적 혁명을 통한 공산주의는 더더욱 아니다. 처음교회의 진정한 공산주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에서 나온 자발적 나눔이요 분배였다. 그렇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이고 가르쳐 주신 기도이며 샬롬의 사회이다

지금 우리가 답할 것은 가능 불가능을 떠나 이성을 찾는 일이고 사랑을 회복할 때이다. 지금 시급하게 회복하여야 할 것은 사랑이다. 불신자를 탓할게 없다. 지금 우리 믿는 이들은 감히 물어야 한다. 내 안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나는 내게 주신 재능, 시간, 몸, 물질을 진정 자발적으로 나누고 섬기려 하고 있는가? 라고 물을 때 민주 공산 사회주의를 넘어서서 저변에서부터 회복되는 샬롬의 나라가 소리 없이 조금씩 조금씩 임하게 될 것이다

건강 이야기

당신의 문제는 과연 공황장애입니까?

글 이종성 집사(사랑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석사교회)



당신은 속수무책으로 불안감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죽거나 아니면 자제력을 잃을 것 같은 강한 공포와 두려움이 갑작스럽게 밀려온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터질 듯이 심장이 뛰거나 또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질식할 것 같은 증상을 겪지는 않으셨습니까? 또는 식은땀이 나고 손발이 저리며 어지러워서 정신을 잃고 쓰러질 것 같은 무서운 경험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아니면 미쳐 버릴 것 같은 끔찍한 경험을 한 일은 없으십니까? 이러한 무섭고 끔찍한 고통이 또 다시 엄습해 오지는 않을까 하고 항상 벼랑 끝에 서있는 사람처럼 불안하고 초조하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예를 들면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느닷없이 이 무섭고 고통스런 증상들이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신체적 변화(호흡이나 혈압)에 대해서도 혹시 그 무서운 느낌이 다시 엄습해 오는 신호가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자기 몸에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쓰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무서운 느낌이 다시 올까 봐 예전에는 마음 편하게 했던 일들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지는 않습니까? 지하철을 타거나 붐비는 백화점에 들어갈 때면 언제나 미리부터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됩니까? 아마도 이러한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소나 차를 타거나 붐비는 백화점에 들어가는 일들을 피하진 않으십니까? 끝으로 이러한 느낌으로 인해 자신이 죽거나 미쳐 버리거나 혹은 여러 사람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망신을 당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당신의 경우와 비슷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공황발작 및 그 결과로 생겨난 심한 불안과 공포증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황발작은 생각보다 아주 흔합니다. 전체 인구의 30%이상이 일 년에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의 공황발작을 경험하는데, 이들은 대개의 경우 시험을 보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연설할 때처럼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공황발작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공황발작을 경험한 비율도 일 년간 전체 인구의 약 9~14%나 된다고 합니다. 공황장애 진단의 경우는 다소 그 비율이 적어지는데, 전 세계적인 역학 조사 결과, 전체인구의 2.5%가 일생에 한 번은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며, 일 년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전체 인구의 1.5%가 공황장애 환자입니다. 이러한 외국의 유병율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환자 수를 추정해 보면 약 40-60만의 공황장애 환자가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공황발작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공황발작에 대처한다고 볼 수 있으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는 않습니다. 공황발작은 사회 경제적 수준이나 직업 혹은 성격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종과 풍습이 다른 모든 문화권에 존재합니다.

공황발작은 강박증, 일반화된 불안 장애, 특정한 공포증과 같은 모든 종류의 불안과 연관된 장애에서도 일어납니다. 또한 우울증과 같은 기분 장애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만일 당신이 슬픈 느낌, 절망감, 흥미의 상실, 기운 저하 등의 증세와 함께 공황발작으로 경험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향

은혜가 필요합니다

글 최상도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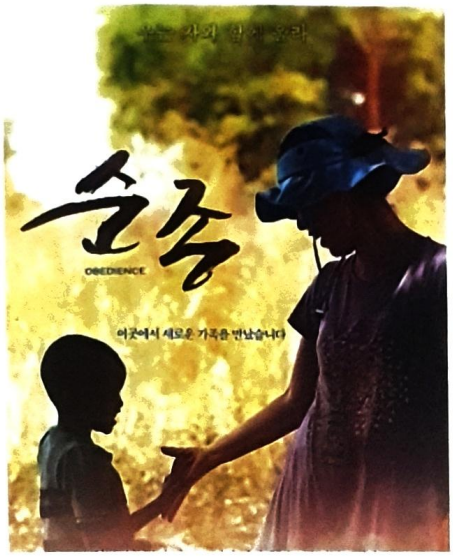
저 북녘 땅에서 유행하는 썰렁한 유머가 있다. 함경도 집단농장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운 좋게 강에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다. 너무 굶주리고 배고프던 차에 큰 물고기를 잡으니 기분이 좋아서 얼른 급하게 집으로 와서 아내에게 말한다. "여보, 내가 오늘 큰 물고기 잡았소. 이 물고기로 튀김을 해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아내가 슬픈 얼굴로 말한다. "집에 기름이 다 떨어지고 없어요." 당황한 남편이 "그래? 그럼 삶아서 찜을 해먹는 것은 어때?" 아내가 말한다. "큰 솥이 있어야하는데, 지난 번 굶을 때 장마당에 가서 팔아서 이젠 솥이 없어요!" "그럼 구워 먹을까?" "땔감도 없어요..." 화가 난 남편이 다시 강으로 가서 물고기를 놓아줬다. 살아난 물고기는 물에서 펄쩍뛰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평양 쪽을 향해서 이렇게 크게 외쳤다고 한다. "김정일 장군님 만세!"

유머치고는 썰렁한 유머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감사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남과 북이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는데, 북과는 달리 우리는 아무리 어렵다 하여도 저 북녘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북이 어려운 이유는 영적인 데서 찾을 수 있다.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모든 것이 얼어붙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해를 허락하여 주셨다. 새 해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필립 안시는 "은혜"야말로 "이 시대 마지막 최고의 단어"라고 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자. 국가적으로나 한국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은혜이다. 2017년도에는 더욱 자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해"가 되도록 하자.

영화 이야기

순종

글 김춘배 화백



오랜만에 한국영화를 소개하며 2017년 새해를 열고자 한다.

이번 영화 〈순종〉은 기독교방송 CBS에서 최초로 제작한 영화라고 한다. 청각장애인 필자로서는 한국영화를 감상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래서 자막 제작을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요원하여 현재까지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은 독자들을 위하여 소개는 해야겠기에 마침 네이버 영화 콘텐츠에서 상세한 소개가 올라와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순종〉은 총2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교사들의 인생역경과 사랑, 헌신, 그리고 종교를 넘어선 인류 보편의 주제를 탐구하며 그들이 '낮은 자들의 척박한 땅'을 선택한 이유를 통해 '순종'의 참된 의미를 질문한다. 즉 우간다와 레바논의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저마다의 삶의 고민과 애절한 사연을 품고 선교지에 서 있는 모습을 담았다 한다.

내전과 반군에 의해 학살당한 육신과 영혼의 땅, 우간다 딩기디 마을. 가족을 잃고 몸과 마음이 찢긴 시리아 난민들의 슬픔의 집결지, 레바논 자흘레 난민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이들이 척박한 땅을 선택하고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에게 '순종'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짧은 성경구절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어렴풋이 찾을 수 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장 15절)

그리하여 그들이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남은 이유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다!

휴먼 감동 스토리 〈순종〉은 대한민국의 대표배우라 할 수 있는 최강희, 최수종 두 배우의 내레이션 참여로 한층 품격을 높였다. 영화에 대한 짙은 애정으로 온 진심이 가득 담긴 내레이션을 선보였던 두 배우는 실제 내레이션 녹음 도중 북받치는 감정에 눈물을 쏟기도 해 〈순종〉이 전하는 감동과 울림의 크기를 가늠케 했다.

우간다 편의 내레이션에 참여한 배우 최강희는 자신이 얼마 전에 다녀온 지역이기에 우간다의 이야기가 더욱 애틋하고 각별하게 느껴진다는 소회를 전했다. 이와 더불어 오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선교활동을 펼치며 사랑으로 우간다 딩기디 마을 사람들을 끌어안는 김은혜 선교사의 모습에 헝용하기 어려운 감동이 찾아 들었음을 고백해 마음을 파고드는 그녀의 내레이션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짐작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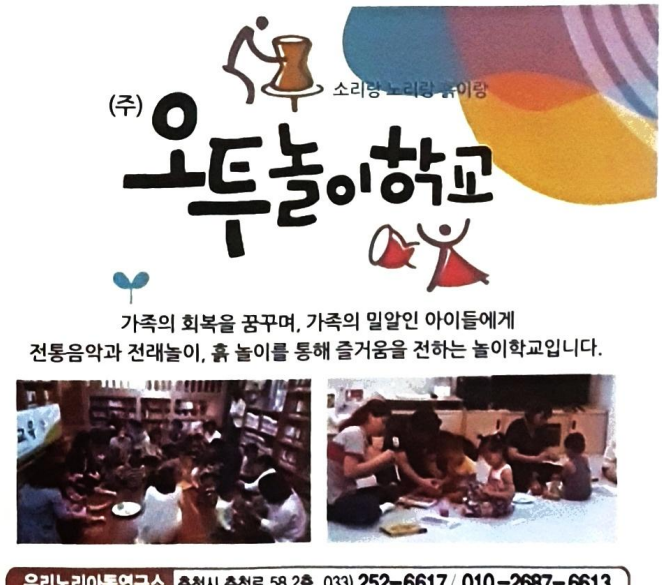
한편, 배우 최수종은 〈순종〉을 하나로 합축시킨 단어로 주저하지 않고 '사랑'을 꼽았다. 그 사랑 속에



담긴 희망과 꿈들, 못다 한 이야기를 고백하며 그는 다시 한 번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단순한 내레이션 참여 그 이상의 경험이며, 그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순종〉을 보고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의 삶을 알고 희망, 사랑, 꿈들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는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 어떤 화려한 수식 없이도 영화 〈순종〉은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고 파고드는 진폭을 가진 영화다. 내전의 한복판에 놓인 우간다와 레바논,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비추면서도 영화는 시종 긍정적인 에너지를 간직한 채 앞으로 나아간다. 그 중심에는 두 선교사와 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낮은 땅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해 세상 그 어느 곳 못지않은 척박한 곳으로 향한 두 선교사가 보여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이타적 사랑'이다.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가족을 소홀히 한 아버지를 원망했던 딸 김은혜 선교사와 난민들을 돌보기 위해 가족을 떠나 시리아로 향한 아들 김영화 선교사의 삶, 거울에 비친 것만 같은 그들의 삶을 통해 돌아보는 가족에 대한 이해와 낮은 땅에서 다시 만나게 된 새로운 가족에 이르기까지, 영화 〈순종〉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가치를 되새기게 만들어 줄 것이다.





후원자 명단

개인 후원자

강옥자 고순덕 곽해옥 권영일 권영자 권혁자 김관수 김남훈 김미경 김민섭 김복심 김복자 김상욱 김성희 김숙희 김순덕 김연숙 김영관 김영명 김영선 김영태 김영희 김요섭 김은희 김재홍 김정미 김정혜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지영 김춘화 김현철 김혜숙 김혜순 김화분 문현숙 민경원 민병임 박갑출 박금화 박노향 박덕남 박만규 박명관 박명선 박순배 박완영 박찬옥 박평숙 박필상 박혜성 배진철 서묘석 서성진 성숙자 성화숙 손임순 송갑수 송영인 송항순 신미연 신성균 신옥자 심효선 안순연 안현주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순자 오흥금 오흥수 원유미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윤성자 윤애자 윤은옥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명선 이명순 이명화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병일 이상만 이세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영애 이영준 이영진 이용숙 이윤규 이은경 이은정 이주영 이진주 이태우 임덕수 임우선 장동자 장소영 장창순 정국환 정규시 정성옥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진호 정치웅 조경대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명숙 조소현 주명호 주신자 지영필 지윤성 차재옥 최귀숙 최미영 최병숙 최선이 최옥순 최종대 최종덕 최종인 표복순 한건영 한명수 한정연 한희선 한희현 함종현 허인영 현재용 홍은숙 홍인숙 홍택기 황기현 황은주 황병호

교회

갈릴리교회 강원침례교회 광염감리교회 거성침례교회 그말씀교회 나눔성결교회 나눔과섬김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산천무지개교회 사랑의교회 사암성결교회 석사감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북성결교회 신성감리교회 아미교회 엠마오교회 옥산포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예담교회 예사랑교회 예수촌교회 주의숲교회 주찬양교회 주향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감리교회 춘천성산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중부교회 춘천침례교회 한빛교회 한울섬김교회 화목교회 효자교회 후평제일교회

단체 및 기업

JDM 건사연 기독문인회 매일관광 베드로선교센타 설곡산기도원 성시무용단 아가갤러리 영광한의원 월드비전 이디야남춘천 춘천와이신협 행복재가요양기관

· **후원안내** |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협 131-005-937566, 농협 172242-51-085114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033-256-1260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큰 광고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033-256-1260